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미국 재무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 개선에 기여
2. 웹3.0 기술이 미래 자산 관리 시장을 재편하는 3가지 이유
3. 블록체인 점점 강화되는 ESG 규제 대안으로 주목..자동화 맞춤형 지원
4. 홍콩, 브라질 및 태국 중앙은행과 토큰화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5. CBDC, '31년까지 2,430% 증가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전망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미국 재무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 개선에 기여

- 디지털 자산, 디파이(DeFi) 환경의 가치 저장 기능과 기존 결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지속적 진화 전망
- 미국의 국채 토큰화, 신 트렌드로 파일럿 단계의 다양한 시도 진행...신뢰를 강화한 블록체인 필요 조언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토큰화된 국채 등에 적용되면서 운영 및 경제적 효율성 부분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금융 시장 인프라로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

▶ TBAC, 토큰화 채권이 국채 거래 유동성 개선...기존 무-허가형 블록체인 대신 허가형 블록체인 개발 필요

-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적 효율성 및 운영을 강화하는 새로운 금융 시장 인프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

* Treasury's Q4 2024 report

- 하지만, 재무부는 이러한 혜택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통 자산의 토큰화 수용과 법률 및 규제 환경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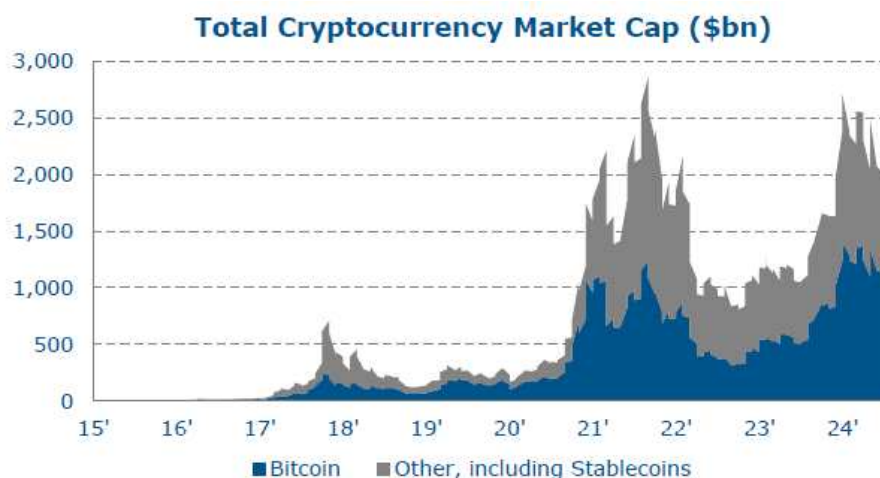
-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TBAC)*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국채 토큰화의 이점을 검토한 결과 토큰화가 운영 및 결제 마찰을 줄여 국채 거래의 유동성을 잠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

*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 연방 자문 위원회법 및 정부 증권법 규정에 따라 재무부와 매 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자문위원회

- 하지만, 이런 장점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공개된 무-허가형 블록체인 대신 정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주도하는 국채 토큰화(T-bills)를 위한 허가형 블록체인의 생성이 필요하다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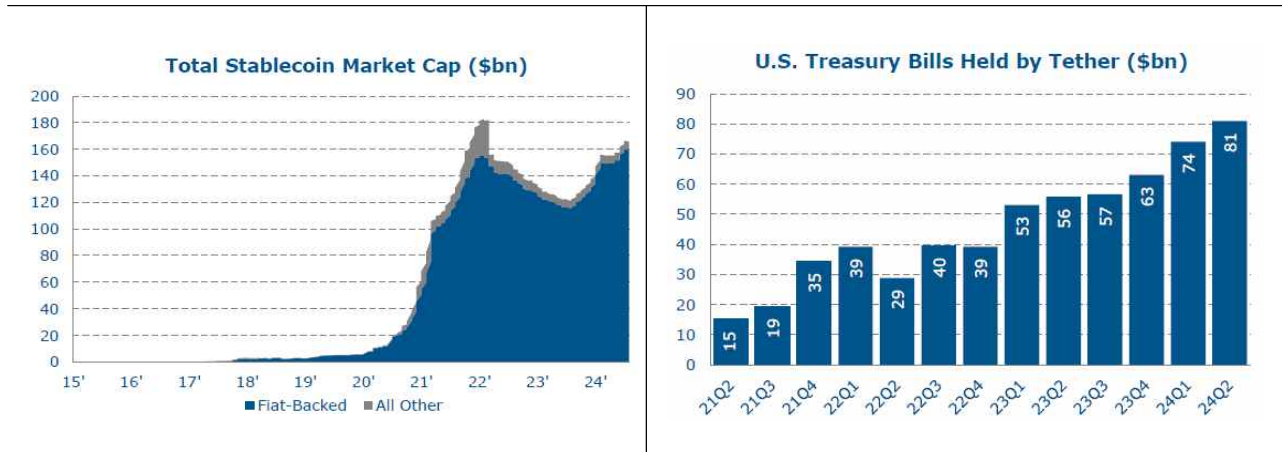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 October 29, 2024", 2024.10.30.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



- 국채 토큰화가 운영 개선 및 국채 시장 혁신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크지만,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허가된 프라이빗 형태의 블록체인(privately controlled and permissioned blockchain)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
- 또한 TBAC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단기 국채인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
- 이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담보가 국채 또는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만기가 짧은 국채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
- 실제 코인 마켓 캡(CoinMarketCap) 자료에 의하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및 결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해 '24년에 사상 최고 시가총액을 기록했고, 현재 1억 8천만 달러에 육박한 상태*
* 이 중 테더(Tether)가 1,2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클이 350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뒤를 이음
- 재무부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 가운데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이 특히 유용할 것으로 평가
- 불변의 원장은 국채 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투명성을 줄이며, 규제 당국과 발행자, 투자자에게 거래 활동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설명
- 또한, 토큰화를 위해 프로그램된 스마트 계약은 사전 프로그램된 담보 이전(Pre-programmed collateral transfers) 등의 기능을 통해 더 효율적인 담보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과 테더가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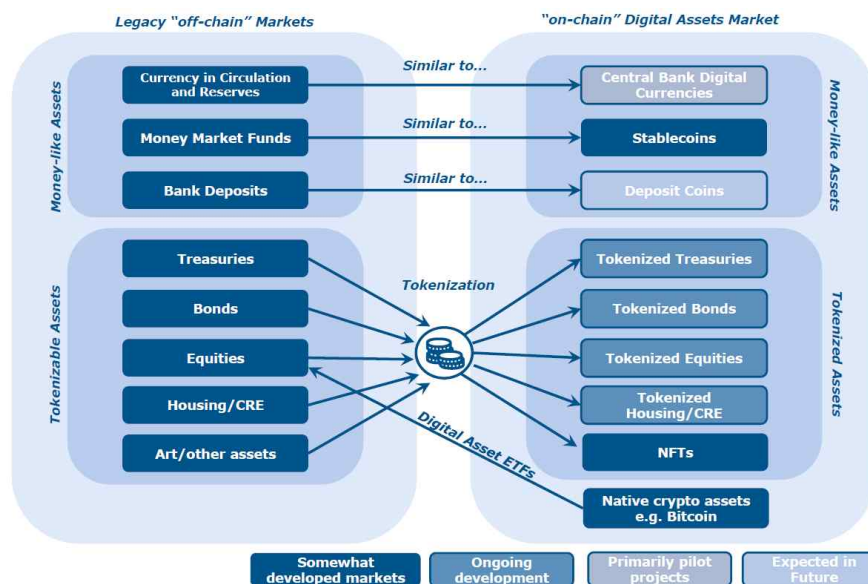
출처: Treasury's Q4 2024 report

▶ (디지털 자산 성장) 디파이 환경의 가치 저장 기능, 기존 결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지속적 진화 전망

- 디지털 자산은 소규모로 출발했지만, 급속한 성장을 보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영역 모두에서 나타났다고 평가
- 하지만 현재까지 암호화폐는 투자 목적의 디지털 자산 보유가 대부분을 이루며,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다른 금융 및 실물자산의 수요를 잠식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
-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탈중앙화 금융에서 가치 저장소 역할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을 활용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기존 결제 인프라 개선 부문에서 두드러짐

-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일반적으로 통화가치를 기초 담보 풀에 연결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유형으로 정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평가
-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에서 대출이 가능한 매력적인 담보로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
-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80% 이상이 거래의 한 측면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다고 분석
-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담보의 주요 부문이 국채 및 재무부 담보 레포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단기를 넘어 중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여부는 규제 및 정책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
-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기존 금융 시간 간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분석
- 전통 오프체인 시장의 유통화폐와 비축금은 온체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유사하고, 머니마켓펀드는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예금은 입금 코인과 유사하다고 비교
-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다소 발달한 시장으로 CBDC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단계로, 입금 코인은 미래 예상 단계로 구분함

[기존 금융 시장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연관성]



출처: PNC

▶ (토큰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원장의 장점을 광범위한 금융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평가

- 재무부는 토큰화를 분산원장이나 1티어 블록체인과 같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에서 토큰 형태로 청구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상호운용할 수 있는 원장의 이점을 더욱 광범위하게 금융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
* 이를 두고 오래된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BIS의 평가를 인용해서 소개

- 토큰화 이점이 국경 간 결제나 레포와 같은 일부 시장은 즉각적이고 큰 잠재력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시장의 혜택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이나 최소한 연결된 원장(integrated ledgers)과 상호운용성 있게 작동하는 세트가 필요하고, 해당 원장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후원과 참여하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국채 토큰화, 새로운 추세로 파일럿 단계에서 다양한 시도 진행...신뢰를 강화한 새로운 접근 요구

- 미국 국채의 토큰화는 비교적 새로운 추세라고 평가하고 대부분 프로젝트가 파일럿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확장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분석
- 이 가운데 블록체인이 재무부 ETF나 정부 MMF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토큰화된 국채 펀드와 24시간 연중무휴 결제를 제공하는 토큰화된 국채 레포 프로젝트 등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고 평가
 - * 블랙록의 BUIDL Fund, 프랭클린 템플턴의 OnChain U.S. Government Money Fund를 대표 사례로 제시
- DTCC가 토큰화를 이용해 지불 및 증권 결제를 간소화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BIS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많은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안전한 디지털 자산 결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DTCC 원칙]

구분	내용
법적 확실성	시장 성실성과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해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을 보장
규정 준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와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일치를 장려
탄력성과 보안	민감한 데이터 보호, 디지털 자산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 보장, 무중단 인프라를 개발
고객 자산 보호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 거버넌스 구현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거래 및 유연한 결제를 지원해 원활한 이체 및 결제를 구현
운영 확장성	시장 성장에 맞춰 표준화된 역할과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구현

출처: DTCC, "Building the Digital Asset Securities Ecosystem White paper", 2024

- TBAC는 토큰화된 국채의 확대를 고려하는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와 업계 전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확장 가능한 분산원장 기술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DTCC의 원칙 참고를 조언
- 지금까지 대부분 암호화 프로젝트는 공개된 무-허가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지만, 운영 취약성, 거버넌스 격차, 보안 위험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토큰화된 국채 시장은 하나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비공개적으로 통제되고 허가된 블록체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 분석

- 미국 재무부가 블록체인이 토큰화 국채 등을 통해 국채 시장의 운영 및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자산이 디파이 환경의 가치 저장과 결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의 토큰화된 국채 등을 새로운 추세로서 국채 거래의 유동성을 개선했다고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관리하고 비공개적으로 통제되고 허가된 블록체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

[출처]

- Cointelegraph, "US Treasury: Blockchain can improve financial system", 2024.11.0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웹3.0 기술이 미래 자산 관리 시장을 재편하는 3가지 이유

- 글로벌 경제지 Forbes가 웹3 기술 확산으로 미래 자산 관리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된다고 예상하면서, MZ세대의 적극적 투자 습관과 블록체인의 대중적 확산이 이 같은 변화의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

디지털 자산 관리 웹3 기업 TradeTogether의 Geoff Ira 대표는 최근 Forbes 기고문에서 웹3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자산관리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은 변화를 추동할 핵심 동인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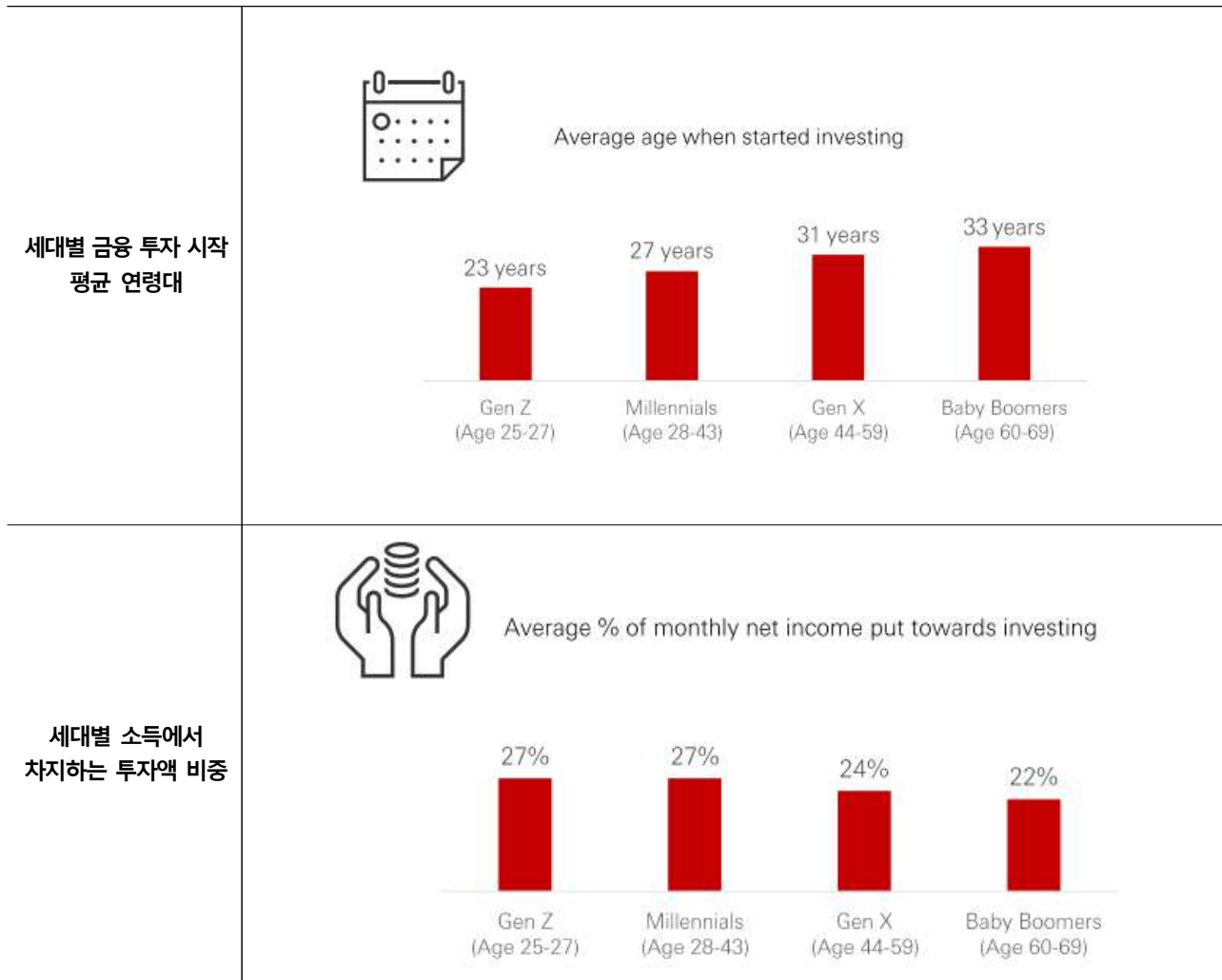
▶ Geoff Ira 대표는 기고문 서두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 시장 변화의 범위와 양상에 대해 평가

- Ira 대표는 금융 산업은 항상 진화와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변화 양상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변화라고 평가
- 특히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웹3 기술 출현으로 자산 관리 방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변화가 금융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고 기존의 장벽을 허물면서 젊은 세대, 금융 자문업,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 등 금융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 또한 웹3 기술이 미래 자산 관리 업종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보는 3가지 이유로 첫째, 투자에 대한 MZ세대의 인식과 태도, 둘째,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 셋째, 탈중앙 금융(DeFi)과 디지털 음악 유통 시장 부상의 초창기 사례를 근거로 제시

▶ (① 투자에 열정적인 MZ 세대) MZ 세대는 투자 시작 연령대가 매우 낮고,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유

- HSBC의 Affluent Investor Snapshot 2024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는 평균 23세에 투자를 시작하고, 밀레니얼세대(Generation M)는 27세에 투자를 시작
* Z세대(Generation Z)는 '90년대 중반부터 '1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이들을 의미
- 반면, X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각각 평균 31세와 33세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답하여, Z세대가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일찍 금융 투자를 시작하는 세대로 분류
- 또한 밀레니얼세대는 소득의 27%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득의 22%를 금융 투자에 지출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와 비교해 MZ세대가 금융 투자에 적극적인 성향 보유
- 특히 MZ세대는 X세대나 베이비붐세대와 비교해 투자 시작 시기가 빠르고, 투자에 지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와 같은 대체 자산(alternative assets)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등, 투자의 방식에서도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표출
- Geoff Ira 대표는 MZ세대의 금융 투자 행태에 대해서 기성세대에서는 재테크가 소수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금융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

[세대별 금융 투자 시작 연령대와 소득에서 차지하는 투자액 비중]



출처: HSBC

▶ (②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소유권과 신뢰에 대한 기존의 사고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초래

- 블록체인은 신뢰 기반의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정 집단에게만 한정되었던 자산을 대중이 접근 가능한 투자상품으로 전환시킴
-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기관 같은 금융 중개자(intermediaries)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을 넘어, 가치 교환과 검증 방식을 재정의함으로써, 과거에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
- 특히 이 같은 변화는 부동산이나 지적 재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토큰화(tokenization)'가 핵심인데, 전환된 디지털 토큰은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즉시 구매, 판매 또는 전송이 가능
-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능을 사용하면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를 자동화할 수 있어 탈중앙화된 통제와 공평한 가치 분배가 가능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은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과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s)가 등장하면서 더욱 가속화됨

- 즉, 이제 일반인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자산 거래의 장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디지털 지갑과 같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게 된 것임

▶ (③ 웹3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전망: Napster 사례 고찰) 향후 웹3 기술이 어떻게 확산 및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기 위해 2000년대 초에 등장했던 Napster 사례를 고찰할 필요

- 2000년대 초, Napster는 MP3 공유를 위한 탈중앙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산업에 지각변동을 발생시켰고, 결국 규제의 벽에 부딪혀 문을 닫았지만, 최근 음악 소비 방식의 중심이 된 Spotify와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토대를 마련
- Napster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은 금융 환경을 혁신하여 사용자가 기존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산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Napster와 마찬가지로 DeFi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중시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와 투자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이용자들의 관심과 투자 대상으로 부상
- 또한 Napster가 등장 당시에는 규제로 인해 실패했지만, 장기적으로 규제되고 널리 인정받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을 예고했던 것처럼, 웹3 기술도 유사한 진화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즉,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규제를 받는 DeFi 플랫폼이 등장하여, 오늘날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Spotify, Apple Music 같은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편의성, 보안, 신뢰를 보장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2024'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밀리 오피스*의 24%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10%는 추가적인 투자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초고액 자산가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도 웹3 분야 진출 시작
 - *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초고액 자산가 및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고 다양한 자문 제공, 프라이빗 बैं킹과 유사하나, 보다 더 포괄적이고 개인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서비스
- 패밀리 오피스의 참여는 전통적인 자산 관리와 웹3.0 혁신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부터 패밀리 오피스, 대형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자산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민주화되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

- 디지털 자산 관리 전문 웹3 회사인 TradeTogether의 Geoff Ira 대표가 최근 Forbes 기고문을 통해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이 미래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 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3대 요인을 제시
- Ira 대표는 첫째, MZ세대의 적극적 투자 성향과 태도, 둘째,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금융 투자 대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가 웹3 기술 기반 자산 관리 시장 변화의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셋째, 2000년대 초 등장하여 오늘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최초 모델이 된 탈중앙 음악 플랫폼 Napster 사례를 고찰하면서, 향후 탈중앙금융(DeFi) 분야에서도 규제 적용 DeFi 플랫폼들이 등장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

[출처]

- Forbes, "Three Reasons Why Web3 Is Reshaping The Future Of Wealth Management", 2024.10.2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블록체인, 점점 강화되는 ESG 규제 대안으로 주목...자동화·맞춤화 지원

- ESG 규정, 산림파괴·탄소배출 등에서 규정 준수 증명을 요구...변경과 조작이 차단된 블록체인 솔루션을 주목
- 디미트라 프로젝트, 농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 리포팅...소규모 농부의 생산성과 규제 준수를 지원

EU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규제 준수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AI, IoT 등과 결합한 블록체인이 ESG 활동에 대한 추적 및 증명 등에서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

▶ ESG 규정, 산림파괴·탄소배출 등에서 규정 준수 증명을 요구...변경과 조작이 차단된 블록체인 솔루션 주목

- 기후 변화의 위협이 구체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요구가 크게 증대되어 ESG는 더 이상 기업 선택 사항이 아닌 기업 경쟁력과 신뢰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음
- 디미트라(Dimitra)는 블록체인 기반 애그테크* 프로젝트로 기업의 ES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됨
 - * Agtech : 농업 관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광범위하게 지칭
- 현재 농업 분야는 ESG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면서 모든 제품이 ESG 규정을 준수했음을 추적이 가능한 증명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시행을 앞둔 EU의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DR)*은 모든 제품에 대해 산림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모든 기업에 기후 관련 위험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함
 - *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산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해 산림 파괴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24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
-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업의 ESG 보고 요건을 충족시킬 강력한 도구로 주목하며, 변경과 조작이 차단된 최신 데이터가 공급망의 정확성 보장과 ESG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애그테크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해 ESG 요구를 충족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부를 위한 맞춤형 기능이 지속적으로 등장함
- 디미트라 프로젝트는 농가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 요약 보고하는 실사 서비스(DDS) 플랫폼을 제공해 소규모 농부가 글로벌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성, 지속가능성, 추적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EU의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이 '24년 12월 적용되는 등 세계 각지의 ESG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변경이 차단된 블록체인 솔루션이 공급망 신뢰 확보와 추적가능한 증명 부문에서 대안으로 주목
- 특히 디미트라 프로젝트는 소규모 농가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 요약 보고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농부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규제 준수를 지원해 새로운 애그테크 기술로 주목받음

[출처]

- Cointelegraph, 'Here's how blockchain helps businesses to automate ESG reporting', 2024.10.2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홍콩]

홍콩금융관리청, 브라질 및 태국 중앙은행과 토큰화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 홍콩금융관리청은 지난 3월 토큰화 지원을 위한 도매용 CBDC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앙상블을 출범
- 브라질 중앙은행 및 태국 중앙은행의 토큰화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토큰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홍콩금융관리청은 토큰화 지원을 위한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wCBDC) 개발을 위해 3월 '프로젝트 앙상블(Project Ensemble)'을 출범

▶ 홍콩금융관리청(HKMA)이 브라질 중앙은행(CBB) 및 태국 중앙은행(BOT)과 토큰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

- HKMA는 이번 파트너십 통해 프로젝트 앙상블을 CBB의 드렉스(Drex, CBB의 CBDC 공식명) 시범 프로젝트 및 BOT의 프로젝트 산(Project San)과 연계
- CBB는 9월 드렉스 CBDC 시범 프로그램의 2단계를 발표하고 10월 중순부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 가운데 토큰화는 드렉스 테스트의 추가 의제에 토큰화 해당
- 홍콩과 브라질 간 외환동시결제(PvP)와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무역 금융 및 탄소배출권 사용 사례에 관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HKMA는 현재까지 드렉스 프로젝트에 7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
- 또한, BOT는 6월 프로젝트 산에 착수한 가운데 HKMA는 BOT와 함께 PvP 및 DVP 거래를 테스트할 예정으로, 개념 증명 개발을 목표로 BOT와 무역 결제 및 탄소배출권 관련 협업을 진행할 예정
- 이번 파트너십은 각 관할권의 상이한 기술 설계, 비즈니스 요구사항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토큰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토큰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HKMA는 프로젝트 앙상블 출범 전인 2월 금융기관의 토큰화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3월 프로젝트 출범 후 6월 프랑스 중앙은행을 프로젝트 앙상블에 참여시켰으며, 8월 샌드박스를 출범
- HKMA는 프로젝트의 인프라 검토를 위해 중국은행 홍콩지사, 항셍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스탠다드차타드 홍콩지사, 해시킴 그룹, 애틀 디지털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홍콩지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
- 한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11월 토큰화된 증권 발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

- HKMA는 프로젝트 앙상블을 CBB의 드렉스 시범 프로젝트 및 BOT의 프로젝트 산과 연계하여 각 관할권의 상이한 규제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토큰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 HKMA는 브라질 및 태국과의 PvP와 DVP 무역 금융 및 탄소배출권 사용 사례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출처]

- Cointelegraph, 'HKMA Project Ensemble partners with Brazil, Thailand for tokenization', 2024.10.2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CBDC, '31년까지 2,430% 증가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전망

- 중앙은행들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위해 CBDC 도입을 고려하며 전 세계적으로 도입 급증
- 현재 전 세계 경제의 98%에 해당하는 134개 국가가 CBDC 연구 또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진행 중

2024년 기준 3,710만 건에 달하는 CBDC 거래 건수가 2031년까지 2,430% 증가하여 78억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장조사 전문기업 주피터 리서치(Juniper Research)는 최근 연구를 통해 2031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거래가 2,430% 증가하여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존 카드 결제망과의 경쟁에 맞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CBDC 도입을 고려
- 현재 전 세계 경제의 98%에 해당하는 134개 국가가 CBDC 연구 또는 테스트 프로그램에 착수한 가운데 이는 35개국에 불과했던 '20년 5월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빠른 도입 속도를 자랑
- CBDC는 '31년까지 국가 간 거래에서 45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개 기관 감소 및 처리 최적화는 국내 결제와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동 연구는 각 지역의 CBDC 및 스테이블코인 도입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국가별 준비 지수를 제시하며, 동 지수는 8개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시장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제공
- 또한, 동 연구는 CBDC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을 정의하는 데 있어 국제결제은행(BIS)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표준의 부재는 국제 무역에서의 유용성을 제한하여 CBDC 도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
- 중국과 EU는 44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는 디지털 화폐가 국제 무역에서 결제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음을 시사

-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존 카드 결제망과의 경쟁에 맞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CBDC 도입을 고려하며 전 세계적으로 CBDC 도입이 급증
- 전 세계 134개 국가가 CBDC 도입을 고려한 연구 또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가운데 CBDC는 '31년까지 국가 간 거래에서 45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며 국제 무역에서의 결제 방식을 재정의할 것으로 기대

[출처]

- Binance Square, 'CBDC adoption could double by 2031, study says', 2024.10.30.